

#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 V. 저성장시대 인적 자원의 역할 제고 방안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1. 07. 26 (火) 14:00~16: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프레스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 헤럴드경제 정책세미나 - 2011년 7월 진행(案)

1. 시 기 : 7월 26일(화) 오후 2:00 ~ 4:00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콘퍼런스 A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3. 大주제: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小주제: **⑤ 저성장시대 인적 자원의 역할 제고 방안**

###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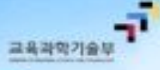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例示)	발표자
주제 1	10분	- <b>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적 자원의 역할 제고 방안</b> .저성장시대 <b>인적 자원의 중요성</b> .우리나라 인적 자원의 <b>경쟁력 제고 방안</b> .창의적 인재(고급기술인력)와 산업기능인력 충원 방안 .여성 및 고령 인력의 <b>활용 방안</b>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설동근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주제 2	10분	- <b>고급 기술인력 및 창의적 인재의 육성 방안</b>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 <b>창의적 인재의 중요성</b> . <b>창의적 인재의 육성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과제</b> .우리나라 <b>고등교육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b>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동대 총장
주제 3	10분	- <b>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기능인력 육성 및 미스매치 해결 방안</b> . <b>산업 기능인력의 미스매치 현황, 문제점, 과제</b> (고학력자의 과잉고급 등 ...) . <b>해외 산업기술인력의 국내유입 활성화 과제</b> .독일과 덴마크 등 <b>선진 사례와 시사점</b>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권대봉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종합토론			사회: 김주현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1.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적 자원의 역할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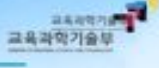
설 동 근(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3低의 시대



- 낮은 경제성장률
  - 성장동력 상실로 인한 정체기
  - NIEs와 선진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상황
  
- 낮은 출산율
  - 낮은 출산율로 노인 부양비율이 급격히 증가
  - ('10) 15% → ('30) 38% → ('50) 72%
  - \* 노인부양비율 = 65세 이상 인구(B)/15-64세 인구(A)
  
- 낮은 고용률
  - 산업 고도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 고용 창출 산업의 쇠퇴



## 인재양성 정책의 방향성은? (1)





오바마  
"미국도 한국처럼 교사 존경해야"



오바마 8대통령  
한국 학생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TV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열 쫓겨" 오바마 또 거론

한국에서 교사가 국가 건설자 (nation builder)로 불린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국 교육열을 보라

우리 교육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 인재양성 정책의 방향성은? (2)

(저출산) 한 사람이 두 세 사람 몫을 해야  
(저성장) 인재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해야



어느 누구  
어떤 재능  
하나도 놓치지 않는 교육으로...

### 인재상(像)-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차별과 다양, 경쟁과 책무의 조화를 통한  
선진 인재 양성

Multi-path  
Strategy

글로벌 창의인재      과학기술인재      산업인재

##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1)

글로벌 시대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창의인재양성

진로교육  
창의교육  
인성교육

##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2)

- **대입 자율화·입시 선진화**
  -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는 **입학사정관제**
  - 사교육 인재가 아닌 스스로 학습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
- **다양한 교육으로 학생의 선택 확대**
  - **기숙학교, 자율교, 창의경영학교** 등 다양한 학교
  -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교 특성을 살릴 **교육과정 운영**
- **기초학력 보장**
  -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으로 한 명의 아이도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
    - \* 기초학력미달비율 : ('08)7.2% → ('10)3.7%
  -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부진학생 지원체제** 구축
- **창의인성교육 정착**
  - **교과교실**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 **교육기부** 확산을 통한 교육 인프라 확충

## 과학기술인재 양성

교육과학기술부

- 융합인재교육(STEAM\*)
  -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제고
  - 원리부터 활용까지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배양**
  -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진 **WCU(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 **서울대 법인화**
  - KAIST 등 **4대 과학기술대학** 육성
- GPS 시스템 구축
  - 우수과학자 양성을 위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기반 **추적 육성 시스템**
  - 대통령 과학장학생,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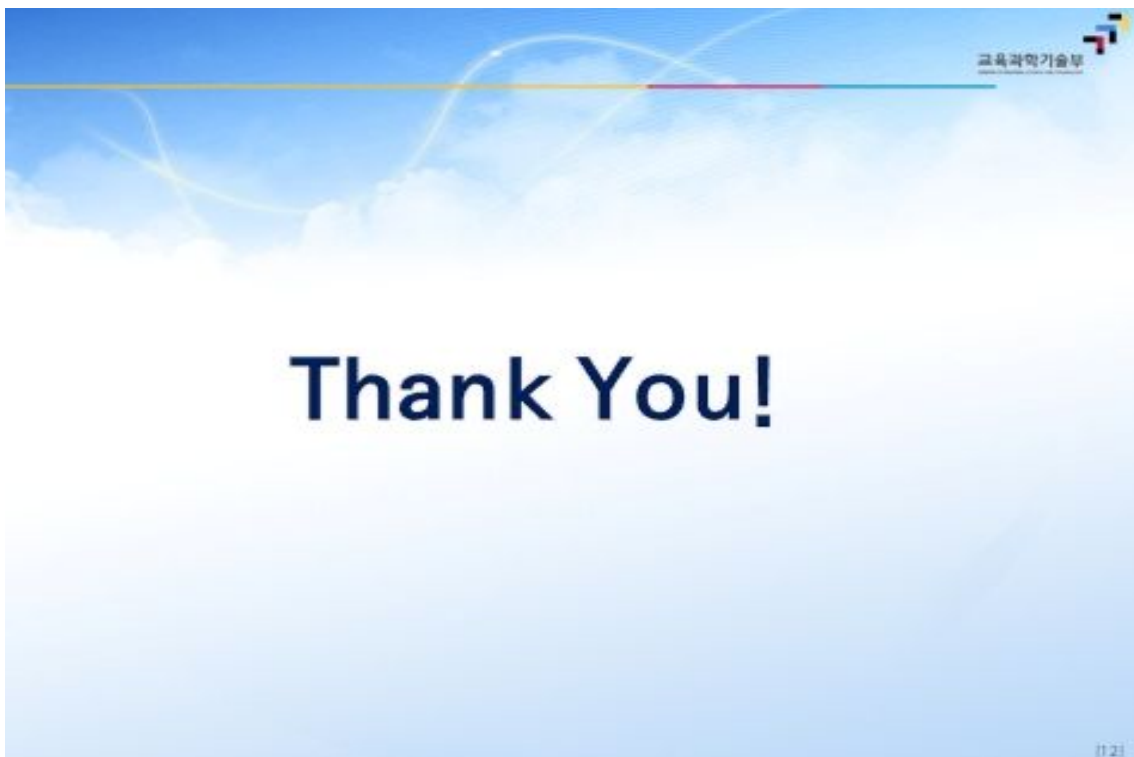
## 산업인재 양성

교육과학기술부

- 직업기술인재 양성경로 완성
  - 명품 직업 교육을 하는 **마이스터고**와 직업교육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고**
  -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확대로 **선진직업교육체제** 완성
- 전문직업기술인력 양성
  - 세계수준의 전문대(**WCC: 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으로 직업기술 명인 양성
-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
  - **산학협력단** 확대 및 수익 제고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 제고
  - **산학협력 선도대학** 운영 및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 강화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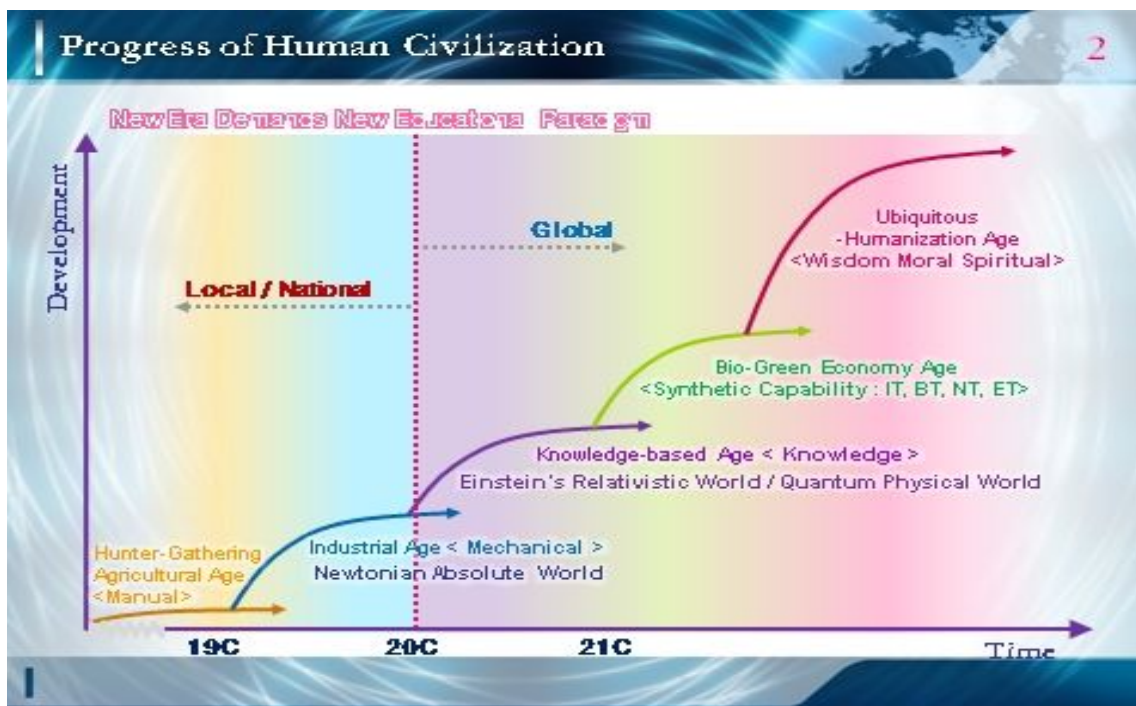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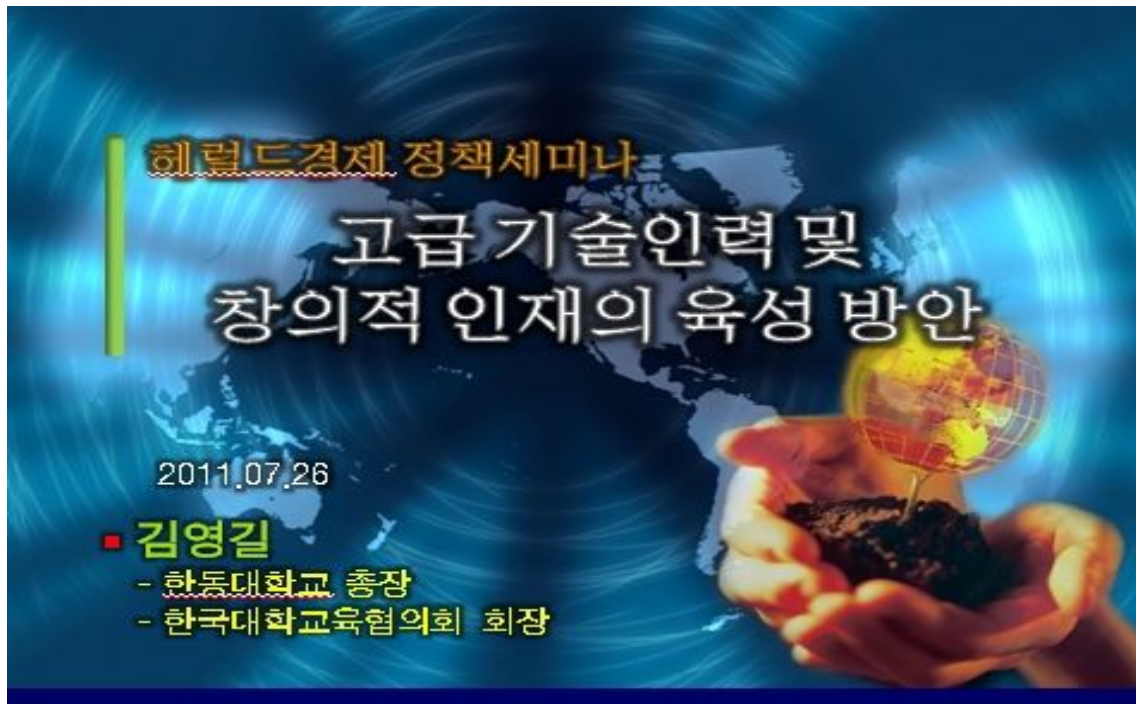
1.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적 자원의 역할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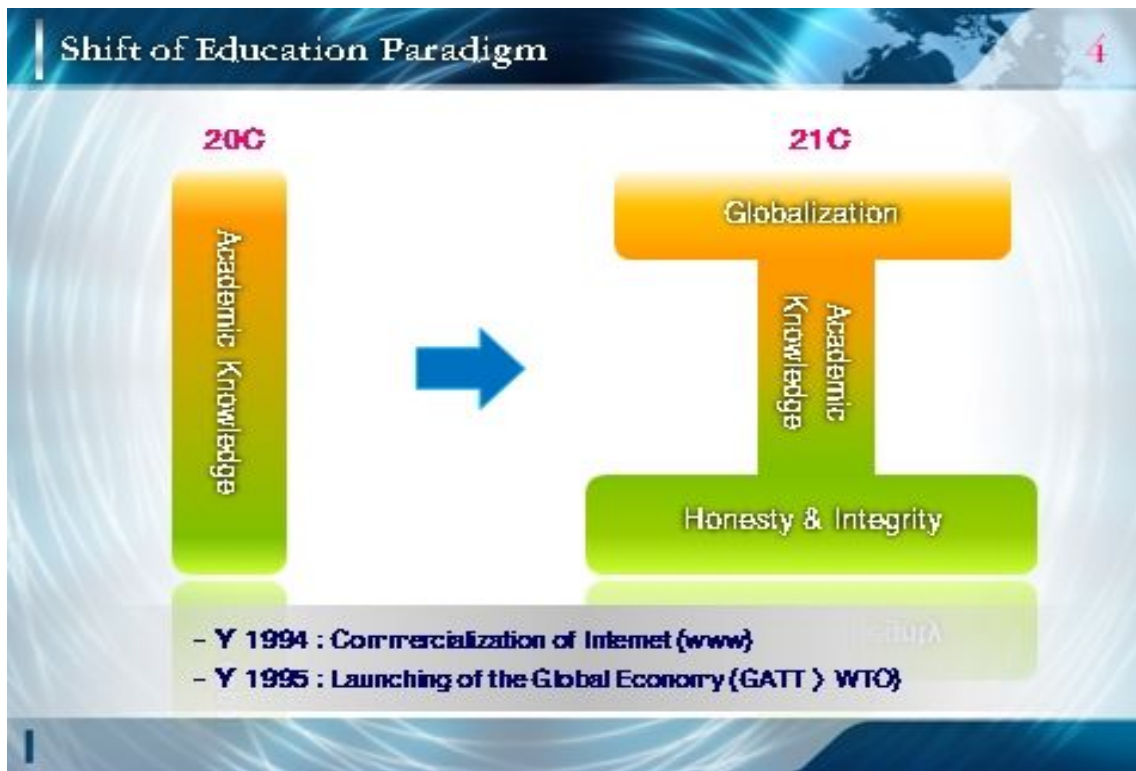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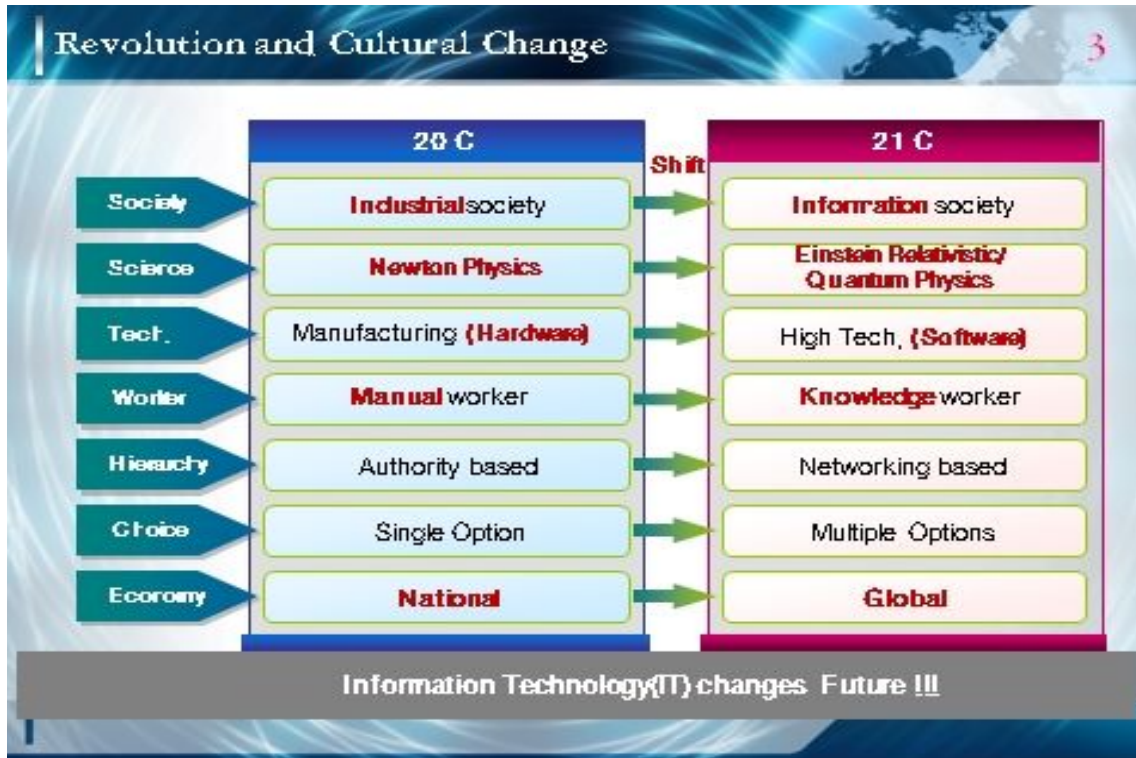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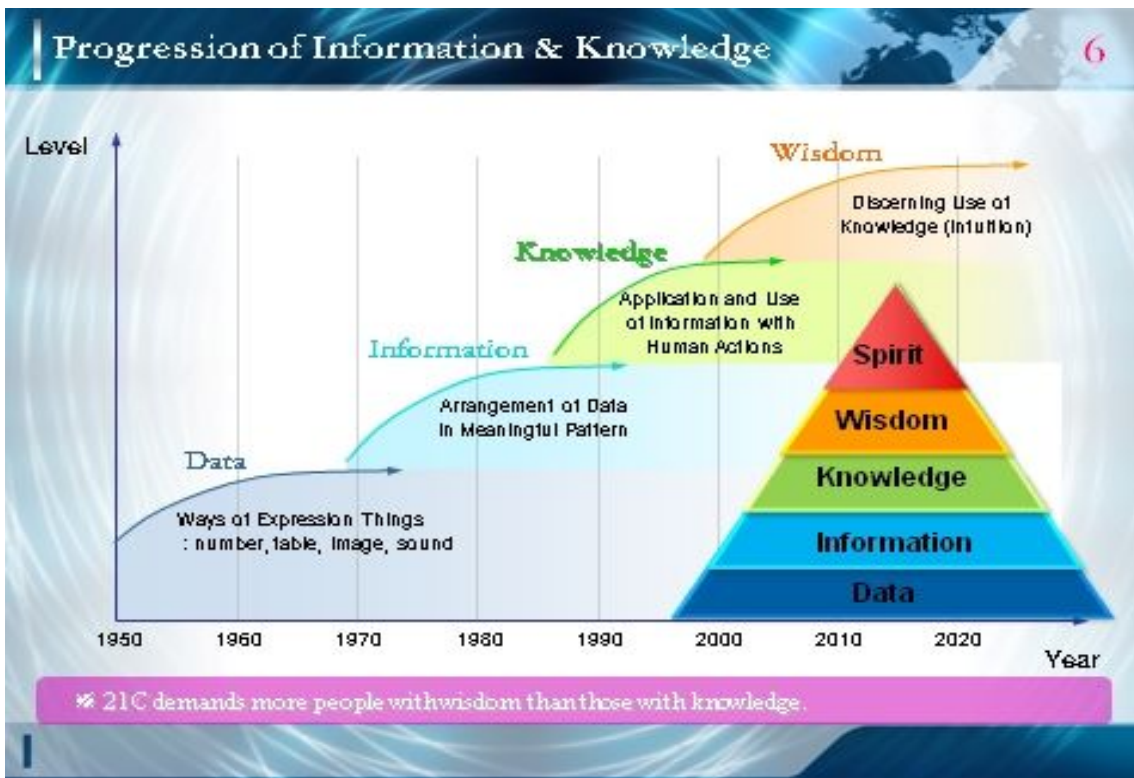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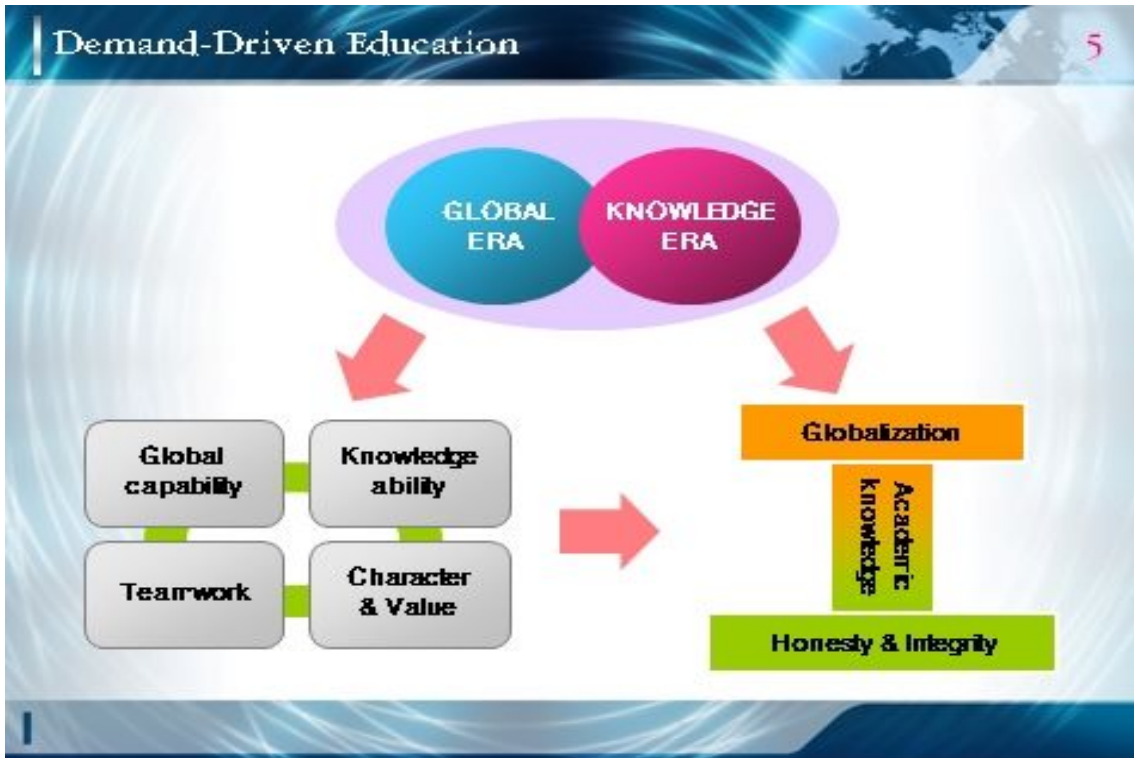


## 2. 고급 기술인력 및 창의적 인재의 육성 방안

김 영 길 (한동대학교 총장)







Nature of Human Beings : Body, Soul and Spirit

7



**Living is an Interaction between Physical Body and Earthly Environment through five senses to soul and spirit.**

*Science has a limitation:  
Science cannot prove the existence of love,  
but love exists.*

**What is the purpose of Life?**

- ~Where is the **Life** we have lost in living?
- ~Where is the **Wisdom** we have lost in knowledge?
- ~Where is the **Knowledge** we have lost in information?

- T. S. Eliot (1898-1962) The Waste Land

Duality of Nature : Perception Depends on Mindset

8



by Joseph Jastrow (1863-1944)  
an American Psychologist



**We can switch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viewpoints. But we can not see both at once. But the figure is both at once.**

"Dual Nature of Light: It behaves as particles and waves"

### Changes in Educational Contents in the 21C 9

**20c** was geared to train students to memorize much of contents in the textbook,

But factual knowledge may become obsolete soon. The rate of change of knowledge is fast, and the life cycle of new information and knowledge became short.

**21c** Education should teach students how to explore the unknown, to challenge the impossible, and to develop the ability to be creative.

**Teaching → Learning → Thinking → Creativity → Innovation**

### Steps from Creativity to Business / Economic Development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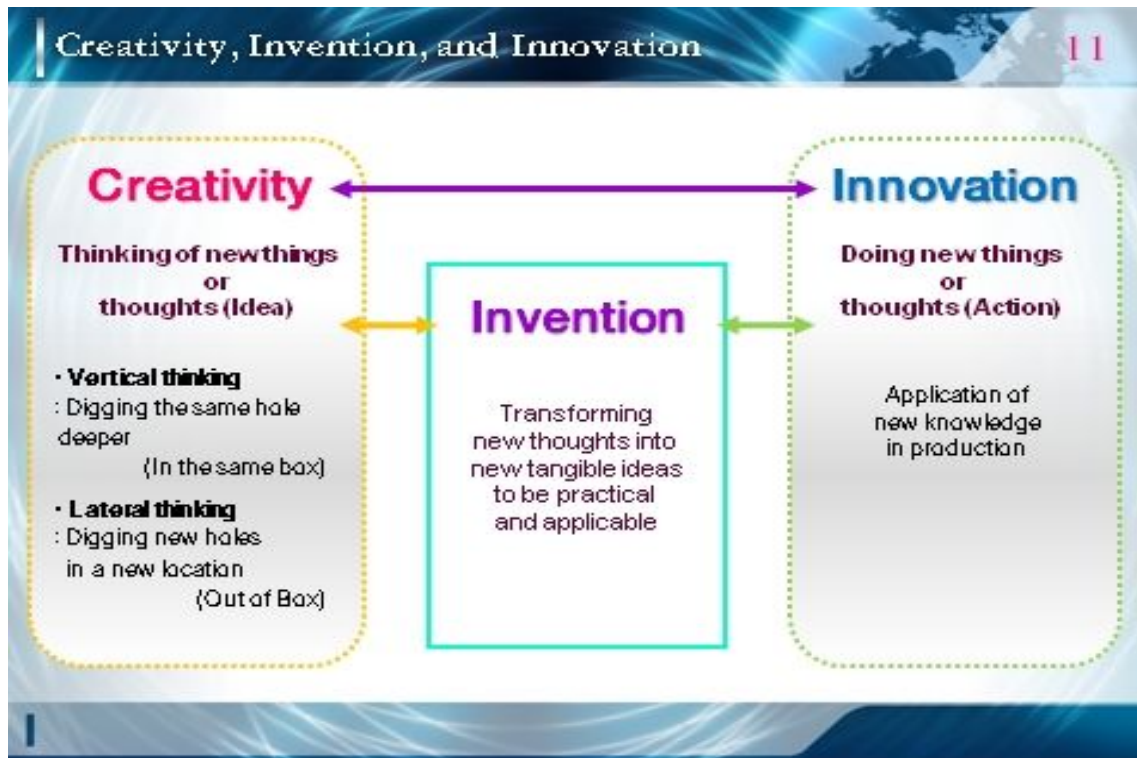
**Divergent Thinking for Creativity**  
**Convergent Action for Innovation**

Creativity  
Invention  
Innovation

Entrepreneurship  
Venture

Marketing

Business/  
Economy



## UNESCO : Reforming Higher Education 13

“ Higher education itself is confronted with formidable challenges and must proceed to the most radical change and renewal it has ever been required to undertake, so that our society, which is currently undergoing a profound crisis of values, can transcend mere economic consideration and incorporate deeper dimension of morality and spirituality.”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Centre for Capacity Building & Entrepreneurship  
HANYANG GLOBAL UNIVERSITY

## Recovery of Human Education 14

※ Education means much more than passing on knowledge contents to students. Education means **shaping their character and life of student.**



“We have forgotten that we teach the humanitie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human.”

2006, Professor Harry Lewis at Harvard College



“the question of the meaning of life has been largely abandoned by college and university teachers.”

2007, Former Dean Anthony T. Kronman at the Yale Law School

## 5 Pillars of UNESCO DESD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5

- Learning to **Know**
- Learning to **Be**
- Learning to **Live Together**
- Learning to **Do**
- Learning to **Transform Oneself and Society**

<http://www.unesco.org/en/educ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strategy/>



## UNESCO : Reforming Higher Education

16

**Education** :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UNESCO DESD: 2005-2014)

The DESD breaks down the traditional educational scheme and promotes :

- **Interdisciplinary and holistic learning rather than subject-based learning**
- **Values-bas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rather than memorizing**
- **Multi-method approaches: word, art, drama, debate, etc.**
-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 **Locally relevant information, rather than national**





UNESCO : Reforming Higher Education 17

Education :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IIS) of UN/UNESCO DESD  
(2005-2014)



- Partnership and networks
- Capacity-building and training
- Research and innovatio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 Consultation and ownership
- Advocacy and vision-building

감사합니다

### 3.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기능인력 육성 및 미스매치 해결 방안

#### 권대봉(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 (1) 산업기능인력의 미스매치 현황, 문제점, 과제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인력은 특성화고(옛 전문계 고교)계 등 정규학제와 직업전문학교 등 비정규학제의 교육훈련기관 이수 후 국가기간 산업 등의 분야에 취업한 인력을 의미하며,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4년제 대학 등 중등 이후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양성되는 전문기술인력과 구분할 수 있다. 산업구조 변화로 직업교육의 중심축 또한 고교 단계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단계로 이동(Skilled Worker→Technician→Technologist)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분야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이다. 학교가 배출하는 인재 공급구조와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수요구조의 괴리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국내 대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졸자의 82%가 대학에 진학해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대졸자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교차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들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다. 거의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을 향해 한 줄로 세우는 모노레일 시스템이 형성된 결과, 기업은 고졸 기능인력 구인난이지만 대졸 청년들은 구직난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약 75%이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옛 전문계 고교) 재학생이 약 25%다. 그렇지만 특성화고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 전체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84%에 육박하기 때문에 16% 정도만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유럽 국가 고교 졸업생의 60~70%가 고졸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또한 유럽 대학에서는 교육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학졸업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가 사회 수요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자가 사회 수요를 초과해 대졸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야기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

### 3.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기능인력 육성 및 미스매치 해결 방안

없는 대학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대를 포함, 전체 294개 사립 대학의 약 10%인 29개교가 신입생 충원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재정은 더 악화하고 교육의 질도 떨어져 대학의 존립이 위태롭다. 대학선진화위원회 후신으로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부실 대학의 퇴출 경로를 마련해 대학 정원을 적정선으로 조정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전공이 공급자 위주로 돼 있어 취업자의 경우도 전공 일치도가 낮아 질적 미스매치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09년 대졸 취업자의 경우, 전공일치도가 인문계 42.5%, 사회계 57.6%, 자연계 59.2% 등으로 매우 낮다. 인력 수요자인 산업계가 학교의 전공과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에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능력주의 아닌 학력주의의 팽배로 대학을 가야 제대로 대접받는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학력 간 임금 격차와 사회적 차별이 대학 진학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기대치가 높아져 중소기업을 외면하기 때문에 양적 미스매치 문제가 생긴다.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탐색교육은 필요한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종별 임금 수준, 관련 분야의 성공사례,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직업친화적 교육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줄이어 타결되면 고용기회도 많아진다. 국내 일자리 부족분을 해외에서 찾을 기회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급선무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능동적으로 여러 줄을 밟게(multi-track) 하는 교육을 하지 않고 수동적인 한 줄 세우기 교육을 한 과오도 있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마이스터고교는 여러 줄 밟기를 할 수 있는 경로 가운데 하나다. 고교 단계뿐만 아니라 중학교나 대학 단계에서도 여러 줄 밟기를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마이스터고교가 여러

### 3.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기능인력 육성 및 미스매치 해결 방안

줄 밟기 경로의 하나로 정착되려면 고교만 졸업해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졸과 대졸 간의 학력 간 임금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2) 해외 산업기술인력의 국내유입 활성화 과제

급속한 저출산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미래 사회 부족인력 보충이 필요하며, 내국인의 3D 업종 및 소규모 기업 기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특히 중소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부족한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력이동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받아 입국 전 국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제조업 등에 최장 3년까지 취업)가 도입되었으나 제도 운영상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외국인력 유입이 단순 노무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고용규모가 업종 및 회사규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외국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어도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유입경로인 외국인 유학생 비중도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부족한 충원률을 메우는데 많은 부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산업기술인력 및 전문인력의 유입 및 국내 잔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 요건 등 전문인력의 영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FTA 등에 따른 인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지경부 조사에 의하면 2009년말 국내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33,4473명으로

### 3.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기능인력 육성 및 미스매치 해결 방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기능인력은 전문대졸 이상의 이공계 전공자로서 연구개발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외국인력 도입 범위가 3D 기피 현상에 따른 단순기능인력 유입에서 전문기술인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단순기능인력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입국에 대한 기대가 낮아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환경과 업무만족도가 낮아 사업장을 이탈하는 불법체류자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아 불법체류자 고용이 불가피한 만큼 극심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

장기적으로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전문인력 및 숙련근로자 유입으로 그 방향을 수정하고, 다양한 계층이 고루 분포하는 외국인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단순기능인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9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5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최근 유럽 주요국들은 고숙련근로자에 대한 문호는 확대하는 대신 저숙련근로자에 대한 입국 기회는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전문, 고숙련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구축, 인센티브 도입 및 교육의료 환경 등 외국인 거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전문기술인력취업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등 분야에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외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으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주권, 국적 부여 기준 완화, 내국인 기술 인력과 동등한 처우, 기술유출방지 대책 마련, 개도국 고급기술인력 유치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활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 (3) 해외 선진 사례와 시사점

여러 줄 밟기 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 유럽이다. 평균적으로 유럽 고등학생의 60~70%가 직업기술교육을 받은 후 직업세계에 진출한다. 대학 진학자는 고교 졸업자격시험을 거친 30~40%에 불과하다. 80%대의 대학진학률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독일과 스위스 고등학생의 50~60%가 일주일에 하루만 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4일은 기업에 출근해 도제훈련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맞물려 평생교육체제가 확립되고, 일자리 창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는 교과부와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국의 다선형 학제는 아이들이 재능에 따라 여러 줄을 밟기 때문에 다양한 단계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초등 6년과 중등 5년 모두 11년의 의무교육을 마치면 직업 전문학교나 대학 입학 준비교에서 각각 2년을 더 공부할 수 있다. 대학은 3년제이다. 영국의 중등학교 졸업생 70%는 직업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13년 만에 사회에 진출한다고 직업 전문학교인 런던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칼리지의 앤디 윌슨 교장이 밝힌바 있다. 영국의 직업 전문학교는 중등학생들에게도 위탁교육 계약을 해 일터에서 주말을 이용,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16세에 정식으로 입학시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한다.

캐나다 워털루대는 산학협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현장실습을 하고 학비도 충당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는 고등학교 성적에 관계없이 일하다가도 언제라도 입학할 수 있다. 커뮤니티칼리지를 졸업하고 직업세계로 나가거나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도 있다. 직업세계에 있다가 직업 전환을 위해 언제라도 다시 다닐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의 직업전문학교는 재학 중 필기시험 없이 실기역량만을 평가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도 학생들이 저마다 타고난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여러 줄 밟기 교육의 틀로 바뀌어나가는 등 교육의 큰 틀을 새롭게 짜야 할 때다.

### 3.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기능인력 육성 및 미스매치 해결 방안

독일의 경우 60% 이상의 고교생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약 15%의 학생은 전일제 특성화고교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고, 약 45%는 주당 3~4일은 기업에서 도제훈련을 받으며,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다. 또한 독일 기업의 약 25%가 도제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도제식 기능인 양성에 필요한 재정의 70%를 기업이 부담하고, 30%를 정부가 부담한다. 독일 고교생의 50%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흘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마이스터의 길을 가기 때문에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진로를 결정하지만,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한다. 프랑스는 초등학교가 5년제이고 중학교가 4년제이며 중학교 마지막 학년 때 직업진로교육에 집중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9년제이며 무학년제로 운영되고 9년 만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1년 더 다닐 수 있다. 덴마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동일한 담임교사가 9년 동안 학생을 지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를 결정한다. 대졸 실업자가 넘치고 있지만 전문계 고교의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도록 부추긴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직업진로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국이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 또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학교가 양성하지 못한다”고 불평·불만만 토로할 게 아니라, 독일 기업처럼 과감하게 직업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직업교육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선순환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직업교육도 살리고 학력인플레도 잡을 수 있다.

대학은 캐나다처럼 학생들이 1년에 1학기는 실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간 2학기제를 3학기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초·중·고 교육은 복지 차원에서 아동·학교·가족부에서,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비즈니스·혁신·기능부에서 관장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과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교과부에 비해 지경부와 노동부 산하 대학들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 특성별로 교과부가 타 부처에 위탁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고용의 한계상황에서 해외 취업과 창업을 특화하는 대학을 육성하려면 관련 부처 위탁이 효과적일 것이다

#### (4) 향후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0년에 수행한 “10년 후 직업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 중 2년제 이상 대졸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27%뿐이다. 고졸이면 충분한 직업이 44.7%이고 나머지는 아예 학력과 무관한 일들이다. 그런데도 우리 일반고 졸업생의 81.5%, 전문계고 졸업생의 71.1%가 대학에 간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51.9%, 2년제 대학 취업률도 55.6%에 불과하다. 4년제 대졸 취업자 중 하향(下向) 취업자 25~35%는 고졸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나 다름없고 그중엔 전문계 고교 등에서 기능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은행 창구직원(텔러) 같은 자리에까지 끼어드는 경우도 있다. 미국 금융회사 창구 직원의 고졸자 비율은 83%인데 우리는 그 비율이 34%에 불과하다고 언론(조선일보 2011년 7월 20일자 사설)이 밝히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상고를 졸업하고 입직해 지점장은 물론 은행장까지 오른 사례가 있다. 지금은 학력제한 철폐와 대졸자들의 하향취업으로 웬만한 일자리에선 고졸자들이 업무를 내지 못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다. 과거 정부가 고졸자를 우대하기 위해 시행했던 학력제한 철폐 정책이, 고졸자를 우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졸자의 자리를 대졸자가 잠식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고졸자가 취업하기 힘든 상황과 대학 정원 증원이 맞물려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율을 시현하게 되었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취업 위주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정책”의 영향으로 기업과 금융권이 고졸자를 다시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이 마이스터고교와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을 약속한 것은 학력제한 철폐로 취업의 길이 막혀있던 고졸자들에게는 희망의 문이 열린 셈이다. 고졸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려고 도입한 학력제한 철폐 정책의 의도는 선의였으나, 결과는 고졸자들의 사다리를 무참히 치워버린 부작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젊은 기능명장들을 길러내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도와주는 기업들을 칭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어 격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나서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성공하도록 지원해야 정부의 교육철학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국민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 3.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기능인력 육성 및 미스매치 해결 방안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이 고용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유연화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의 활성화가 가능해지므로 산업계도 같이 협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드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교가 성공해야 한다. 기능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력별 편차가 심한 노동 시장 임금구조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대상 임금구조를 보면 고졸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대졸 103.6, 대졸 157.7 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에 따르면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의 임금 차이는 미미한 반면, 고졸자 및 전문대졸자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의 임금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임금체계가 정립된다면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기능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되며,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직업을 가져야 결혼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인문계 고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때 아현산업정보학교와 같은 직업학교에서 1년간 위탁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반계 고교생에게도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에 7개교밖에 없고 희망 학생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문계 고교에 진학했을지라도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는 현실적 증거다. 따라서 영국처럼 중학생부터 희망자는 누구든지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직업기술교육을 받고 대졸자보다 먼저 직업을 갖는 기술인이 학위가 아닌 역량에 의해 사회경제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조기 취학이 노동력 조기 투입으로 연결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3.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기능인력 육성 및 미스매치 해결 방안

대학을 향한 한 줄 세우기 교육에서 재능과 소질에 따라 여러 줄 밟기 (Multi-Track) 교육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중학교 때 철저한 직업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능올림픽에서 한국보다 뒤처졌지만 여전히 선진 강국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유럽 국가에서는 기능인들이 사회적 대접을 받고 있다. 그들은 중학교까지 직업진로교육을 철저히 받고 고교부터는 인문계·기술계·기능계로 분류해 여러 줄 밟기 교육을 받아 다수가 기능인의 길을 택하고 있다.

기업의 산학협력이 대학뿐만 아니라 특성화고교(옛 전문계 고교)로 확산돼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학과의 산학협력은 활발한 편이었지만 고교와의 산학협력은 그렇지 못했다. 최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산학협력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경쟁력의 원천인 기능인력의 확보·유지·개발이다. 기업이 대학과 산학협력을 할 때 주는 인센티브를 고등학교에도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